

積石木槨墳의 築造 過程과 埋葬 프로세스(process)

沈 炫 晳*

목 차

I. 序論

II. 構造

1. 積石木槨墳의 構造에 대한 既存 認識의 問題點
2. 積石木槨墳의 構造的 特徵과 構成要素

III. 築造 過程과 埋葬 프로세스(process)

1. 築造 過程
2. 埋葬 프로세스(process)

IV. 結論

* 우리文化財研究院

國文要約

積石木槨墳의 構造, 築造 過程, 埋葬 프로세스를 復原하는 作業은 積石木槨墳의 概念을 明確히 理解하고자 하는 作業이며, 積石木槨墳과 관련된 모든 研究의 出發이자 核心이기도 하다.

日帝強占期 이래 지금까지 100여기 이상의 積石木槨墳이 조사되었지만, 構造에 관한 많은 부분을 아직 밝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起源과 系統論, 概念과 範疇, 發生論 등 多様な 分野에서 研究가 進行되었고, 活潑한 論意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한편, 基底部에 대한 조사가 확실히 이루어진 最新 發掘 資料들을 中心으로 檢討한 結果, 既存 認識과는 달리 大型墳 뿐만 아니라 小型墳과 中型墳에서도 완전한 地上式과 半地上式 構造를 한 것이 뚜렷이 確認되었다. 이를 통해 基底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既 發掘資料 中에는 木槨의 位置를 地下式으로 誤判한 事例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積石木槨墳이라는 墓制가 처음부터 墳墓의 地上化와 高塚化를 指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石築式 護石, 先築封土, 積石部 등의 構造的인 特徵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積石木槨墳은 規模에 있어 엄청난 差異를 보이지만 規模에 따른 構造的 差異만 存在할 뿐, 그 築造工程과 築造原理에 있어서는 完全히 同一하다. 본묘의 地上化가 뚜렷하지만 전통적인 豎穴式 埋葬方式을 固守하는 점이 무엇보다 重要な 特徵으로 생각된다.

築造 過程과 埋葬 프로세스의 復原은 現 時點에서의 積石木槨墳 構造復原을 바탕으로 推定된 결과이다. 최근의 調査傾向을 볼 때, 構造는 더욱 具體化되고 築造 過程과 埋葬 프로세스 역시 明確해질 것이다.

【主題語】

積石木槨墳, 構造, 築造 過程, 高塚化, 埋葬 프로세스(process), 考案

I. 序 論

1909년 야츠이 세이이치(谷井濟一)에 의한 皇南里 南塚(現 145호)의 發掘을 시작으로 잠자고 있던 積石木槨墳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최초의 조사에서는 무덤의 構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埋葬主體部에 조차 到達하지 못하였다. 이후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100여기 이상의 크고 작은 積石木槨墳이 發掘되었지만, 아직까지 무덤의 構造에 관한 부분 全體를 明確하게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積石木槨墳의 築造 過程과 埋葬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構造復原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고분의 構造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築造 過程과 埋葬 프로세스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이러한 작업들은 단순히 積石木槨墳의 築造에 이용된 기술적 요소를 밝히는 것 외에, 古墳造營集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이며, 積石木槨墳의 築造意圖를 밝혀 묘제의 概念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構造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다. 構造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면밀한 조사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原因이다. 日帝強占期 조사 이후 1세기가 흐르는 동안에도 積石木槨墳 관련 조사·연구의 관심과 초점은 遺物이었다. 그나마 古墳의 構造나 築造方法으로 視野가 확대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積石木槨墳의 構造에 관한 研究史를 검토하여 既 연구의 관점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古墳의 規模에 따라 構造復原을 시도한다. 이를 토대로 規模別로 積石木槨墳의 築造 過程을 復原하고 共通된 埋葬 프로세스를 밝히고자 한다. 결국, 積石木槨墳 造營集團이 積石木槨墳의 築造를 통해 意圖하고 指向하고자 한 바를 理解하는 것이 이 글의 最終目的이다.

II. 構 造

積石木槨墳 關聯 研究는 起源과 系統, 概念과 範疇, 變遷 過程, 構造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실은 하나로 連結되어 있으며, 그 出發은 構造에 있다. 時期 혹은 規模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는 積石木槨墳의 構造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概念과 範疇는 달리 설정되며, 起源 및 系統, 變遷 過程 등에 관한 이야기도 달라진다. 여기서는 積石木槨墳의 構造에 관한 諸見解를 정리하고 이를 批判的

으로 檢討하여, 筆者의 意見을 提示하고자 한다.

1. 積石木槨墳의 構造에 대한 既存 認識의 問題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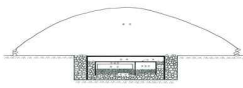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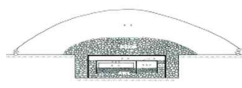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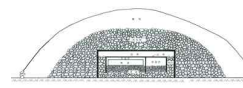
積石木槨墳의 발생에 관한 여러 理論(표 1)에서도 드러나듯이, 積石木槨墳의 構造에 대한 認識論은 크게 四方積石式과 같은 형태를 이해하고 이를 積石木槨墳의 範疇에 包含시키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兩分된다. 四方積石式은 積石木槨墳의 發生을 소위 自體發展說로 인식하는 입장에서 설정된 것이며, 發展的 變遷 過程을 거쳐 完成되어 가는 積石木槨墳의 시간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構造가 된다(표 2). 自體發展說 내에서 보면, 構造的 차이의 核心內容은 地下式과 地上式으로 구분되는 木槨의 位置 그리고 木槨上部의 積石存在와 수량 차이이다. 自體發展說에서 제시된 分類와 變遷 過程의 問題點¹⁾은 여기서 논외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分類案으로 積石木槨墳 전체를 分類해 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최근의 發掘 성과는 물론이고, 기 보고된 여러 자료들에서도 이 分類案에 포함시킬 수 없는 構造가 확인된다. 그것은 木槨이 거의 (半)地上式에 가까우면서도 積石의 양은 많지 않아 소위 積石封墳과 같은 형태로 볼 수 없는 構造이다. 즉, 기존 分類案에서의 上部積石式이 地上化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황오 54호 갑총, 쪽샘 B지구 연접분, 황오 100유적 3호 분 등이 있다. 이러한 構造는 대체로 소형분과 중형분에서만 확인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실, 이와 같은 構造에 대한 인식은 김두철(2007)에 처음 제기되었다. 그는 황오동 100유적을 직접 조사한 담당자로서 소형분인 3호의 構造復原을 시도하였다. 황오동 100유적의 상층유구(積石木槨墳)에 대한 정식보고서는 미간이지만, 3호묘의 構造와 築造 過程을 통해 1次 封土(先築封土)와 護石을 주 내용으로 하는 積石木槨墳의 地上化에 대해 이미 상세하게 언급한 바 있다.

1) 自體發展說의 分類案에 제시된 四方積石式과 上部積石式은 서로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構造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四方積石式은 圜石式木槨墓와도 구분하기 쉽지 않아 概念을 명확하게 알기 힘들다. 기본논리는 木槨이 점차 地上化되고 積石量이 많아진다는 것이지만 빠르다고 인식되는 몇몇 대표 사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늦은 時期까지 완전히 地上化되지 않은 上部積石式(호우총·은령총)이 확인된다. 또한 積石木槨墳 築造 全時期의 變化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변화의 동인 역시 뚜렷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표 1. 積石木槨墳 發生에 관한 說

	外部起源(影響)說	自生說	
發生主體	外部	內部	內部
發生過程	外部文化의 傳播・移入・移植	內部文化의 自體發展	外部文化要所の 變容・自體發生
主要 內容	四方積石式 否定 一體化된 構造	四方積石式 設定 繼起的・漸進的 發展	四方積石式 否定 間接影響(아이디어・刺戟) 新觀念・構造開發
研究者	이은창(1978) 강인구(1981・1991) 최종규(1983) 신경철(1985) 최병현(1992・1998・2000) 박광열(2000)	이성주(1992・1996) 이희준(1987・1996) 김대환(2001) 이재홍(2007) 김용성(2007)	김두철(2009) 김동운(2009) 沈炫暉(2012・2013)
基本 構造	豎穴墓壙・木槨・陷沒 積石部・外護石・圓型封土・ 上部積石	木槨・陷沒 積石部・ 外護石・圓型封土・ 木槨周圍 積石	木槨・陷沒 積石部・ 外護石・圓型封土・上部積石・ 積石上部 密封粘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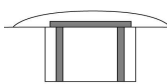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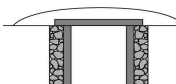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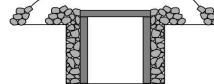

표 2. 自體發展說의 積石木槨墳 構造 變遷案

研究者	構造 變化		
이희준(1996・2007)	四方積石式	上部積石式	地上積石式
김대환(2001)	四方式 積石木槨墓	上部積石式 積石木槨墓	地上式 積石木槨墓
김용성(2007・2009)	封土墳 地下式 積石木槨墓	積石封土墳 地下式 積石木槨墓	積石封土墳 地上式 積石木槨墓
모식도 (김용성의 案)			
代表 遺構	月城路 가-13호 皇南洞 109호 3・4곽	壺杆塚 銀鈴塚	皇南大塚 南墳・北墳 天馬塚

한편, 최근 발표된 박형렬(2016)의 논문에서는 쪽샘 41호와 44호의 예를 통해, 積石木槨墳에는 構造的으로 地上式과 地下式の 2가지가 확인되며, 이들은 構造와 築造方法이 완전히 다른 別個의 系統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서로가 동일한 시간성을 가지므로 系統間의 時間적 先後關係는 없으며, 木槨部나 墳型의 變化 등은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木槨位置와 積石部の 構造的인 差異點만 있다는 것이다. 또한 地上式과 地下式은 時

間性보다 계층에 따른 位階差異가 存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기존 自體發展說인 四方積石式(地下式)→上部積石式(地下式)→地上積石式(地上式)으로의 變遷 過程에서 地下式과 地上式이 시간적으로 共存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地上式은 高句麗의 영향에 의해 완성된 형태로 발생한 것이며 地下式과는 전혀 다른 系統으로 각각 變遷되어 간다고 본 것이다. 즉, 四方積石式에서 上部積石式으로의 自體發展은 기존 견해를 인정하고, 地上式은 自體發生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기존 自體發展說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最新資料를 통해 論理的 補完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系統에 대한 認識과는 別個로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 自體發展說의 견해와 같이 四方積石式과 上部積石式을 認定하고 變遷 過程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既存 見解와 同一한 問題點(註 1의 내용)을 안고 있다. 地下式 積石木槨墳의 變遷을 段階別로 模式圖와 함께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고는 있지만 實際 事例들보면, 이 分類表에서 언급되지 않은 構造가 이미 많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分類 自體를 명확하게 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²⁾

표 3. 地下式 積石木槨墳의 變遷에 대한 概念 比較(박형렬 2016의 표 13)

模式圖					
		四方積石	四方積石+護石	四方積石+上部積石+護石	
本稿段階	1 一列主副槨式	2 一列主副槨式	3 一列主副槨式	4 一列主副槨式	5 單槨式
	木槨墓	(四方式) 積石木槨墓	(四方)地下式 積石木槨墳	地下式 積石木槨墳	
최병현(2014)	(粘土充填) 木槨墓	(石材充填) 木槨墓	積石木槨墳		
이희준(1996)	木槨墓	四方式 木槨墓(?)	四方積石式 積石木槨墓	上部積石式 積石木槨墓	

2) 이와 같은 인식과 연구방법론은 전반적인 흐름과 경향성을 알기 위함이 목적이라고는 하나 결국,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分類案을 필요로 하며, 궁극적으로 構造 변화의 動因과 의도 등 핵심에는 다가가지 못한다.

이상과 같이 積石木槨墳의 構造에 대해 발생과 系統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地上式으로 分類되는 積石木槨墳의 構造에 대해서는 연구자 간에 크게 異見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皇南大塚 南墳이 가장 빠른 사례이며, 地上式 木槨部 그리고 木架構造와 함께 소위 積石封墳으로 불리는 큰 規模의 積石部를 갖춘 構造이다. 대체로 大型墳이 이와 같은 構造이며, 그 이하 고분들과는 規模 및 位階差異가 뚜렷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문제가 되는 것은 地下式 積石木槨墳으로 分類되는 小型 혹은 中型 고분이다. 上部積石의 有無나 積石量을 기준으로 四方積石式, 上部積石式으로 分類되며, 완전한 地下式構造 외에도 一部地上式 또는 半地下式 構造도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一部 地上式 혹은 半地下式은 築造 過程과 埋葬 절차를 상정해 보았을 때, 完全地下式과는 構造와 築造意圖가 달라 완전히 다른 무덤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地下式構造의 積石木槨墳은 數量도 매우 적고 時期的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地下式 積石木槨墳으로 보고된 자료들 중에는 完全한 地下式 構造가 아닌 사례들도 많이 확인되고 있어 再檢討가 必要하다.

2. 積石木槨墳의 構造의 特徵과 構成要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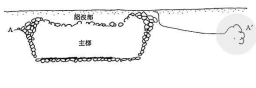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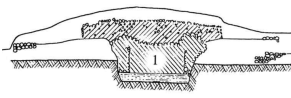

이상에서 검토한 결과, 積石木槨墳의 構造에 있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다. 첫째, 완전한 地下式 構造에서 地上式 構造로의 繼起的變化는 明確하지 않다. 둘째, 地下式으로 分類된 構造 중에서 完全한 地下式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적고, 時期的으로도 앞 時期에 限定된다. 셋째, 完全한 地上式構造는 소위 積石封土라고 하는 大規模 積石部를 갖추고 있으며, 大型墳 以上에서만 確認된다. 결국, 積石木槨墳은 일부에서 완전한 地下式 構造가 확인될 뿐 대부분은 半地下式 또는 일부 地上式 등 埋葬主體部の 地上화가 고려된 構造를 하고 있다. 積石量이 完全 地上式에 비해 많지 않은 半地下式 또는 一部 地上式은 보통 소형분과 중형분에서만 확인되고 있고 大型墳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木造架構施設과 함께 大規模 積石部를 마련한 완전한 地上式 構造는 주로 大型墳 이상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積石木槨墳의 規模에 따른 構造의 차이가 確然하다. 사실, 고분의 規模에 따라 적절한 構造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 當然한 것이며, 同時期에 비슷한 規模의 고분은 비슷한 構造를 하고 있을 것이란 豫測까지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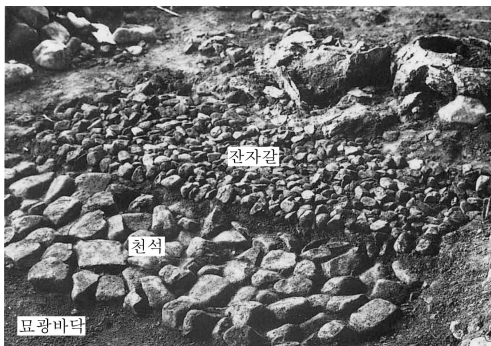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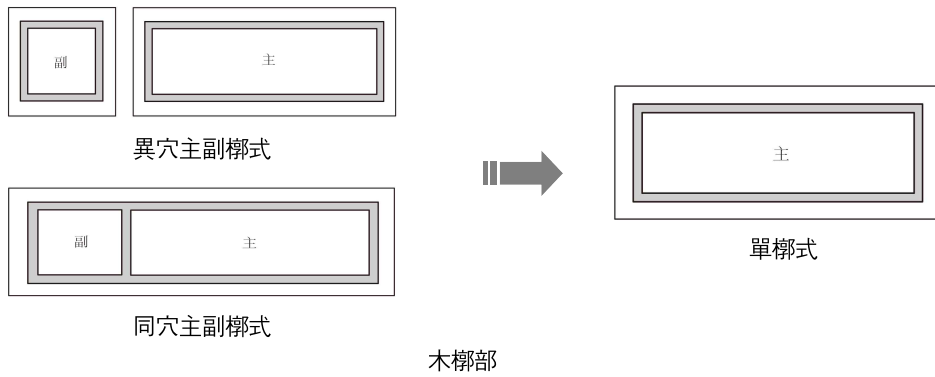
이렇듯 積石木槨墳은 規模에 따른 構造的인 差異만 存在할 뿐이며, 造營集團이 積石木槨墳의 築造를 통해 지향하고 의도한 바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築造 過程과 埋葬 프로세스의 복원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다.

積石木槨墳은 規模에 상관없이 共通의 構成要素를 갖추고 있다. 수혈식 묘광, 川石과 잔자갈을 이용한 바닥시설, 木槨, 木槨周邊과 上部에 川石을 이용한 積石, 上部積石을 덮는 密封粘土, 封墳 基底部에 설치한 石築式의 護石, 護石에서 墓壙까지 木槨 주변으로의 先築封土, 사질토와 역석층을 활용하여 성토한 圓型封土를 기본 構造로 하며, 고분의 規模에 따라서는 순장을 위한 이중곽과 석단시설, 積石部 설치를 위한 木架構造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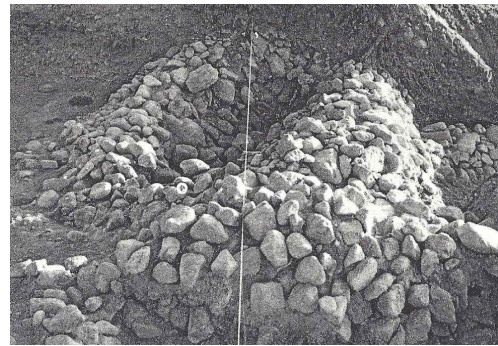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이 필자가 積石木槨墳의 構造를 이해하는 큰 틀이다.

표 4. 積石木槨墳의 規模에 따른 構造差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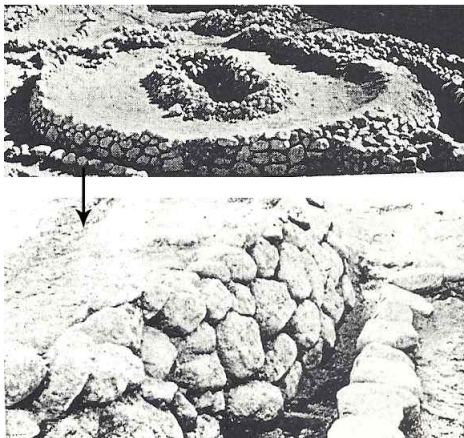
規模	小型墳	中型墳	大型墳
封墳直徑	약 15m 이하	약 25m 이하	약 30m 이상 ~ 80m 급
木槨位置	一部 地上式 또는 半地下式		完全 地上式
構成要素	木槨, 上部積石, 密封粘土, 護石, 先築封土, (木架構造施設)		
主要 遺構	쪽샘 B1·B2·B3 황오100 1·2·3호 미추 6구 C지구 1호·11호	황오 54호 갑총, 황남 82호 황오 16호 1곽, 미추 5구 8호 7구 5호, 쪽샘 41호	皇南大塚 南墳·북분 천마총, 금관총, (쪽샘 44호)
斷面構造	 味鄒-6區(C地區 11號)	 皇吾 16號 1槨	 天馬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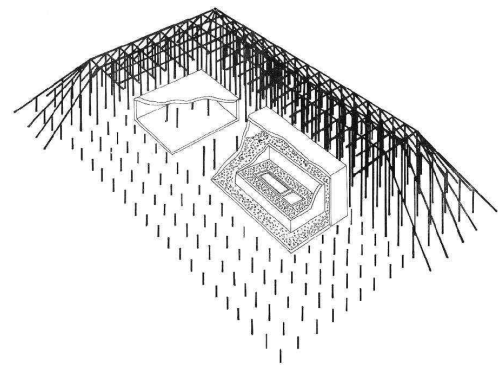
下部施設
<路東里 4號墳>



積石部
<味鄒-第4區(A地區 3號 1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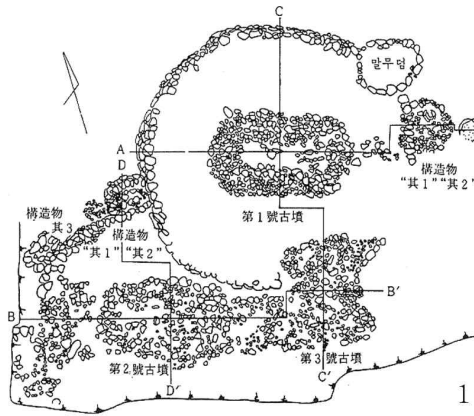


護石
<味鄒-第6區(C地區 11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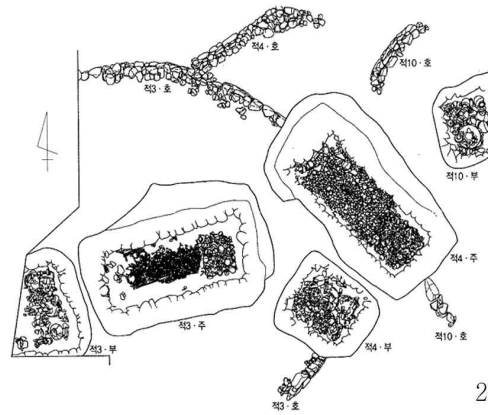


木架構造
<皇南大塚 南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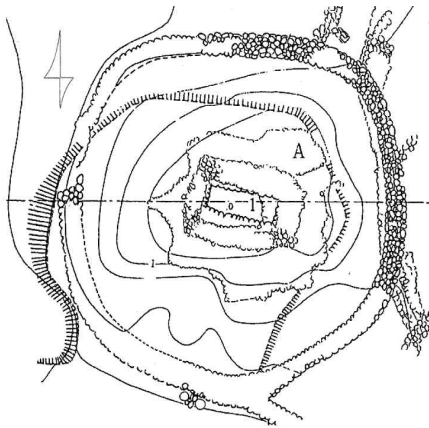
도면 1. 積石木槨墳의 構成要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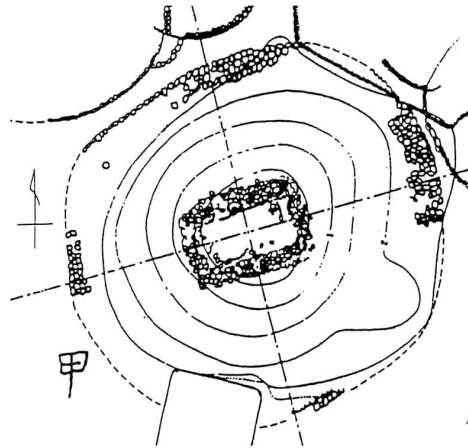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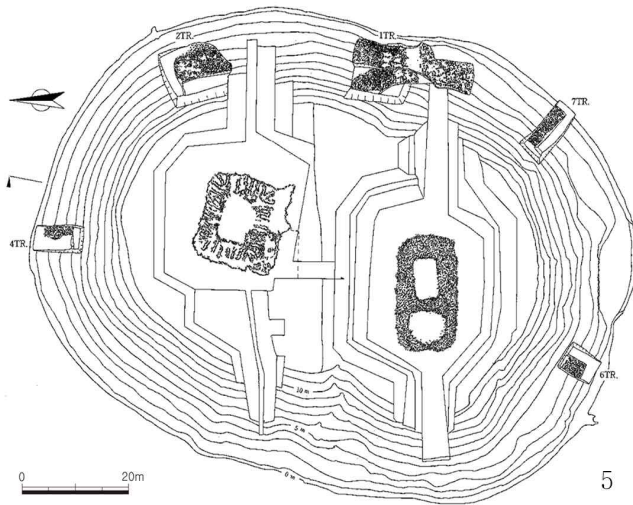
2



3



4



5

1. 味鄒-6區(C地區1・2・3號)
2. 皇吾100 3・4・10號
3. 皇吾 16號 1櫛
4. 皇吾 54號 甲塚
5. 皇南大塚 南墳・北墳

도면 2. 規模別 積石木槨墳 諸様相(縮尺不同)

Ⅲ. 築造 過程과 埋葬 프로세스(process)

積石木槨墳의 構造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조사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埋葬主體部의 地上化이다. 알려진 바와 달리 대부분의 積石木槨墳은 일부 地上式 또는 완전 地上式의 構造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이전 木槨墓단계의 완전 地下式構造에서 묘광을 얹게 파는 (半)地上式으로의 埋葬主體部 위치 변화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埋葬主體部의 地上化는 그대로 可視的 封墳의 築造, 高大化라는 무덤의 외형 변화와 연동되며, 이것은 積石木槨墳의 築造 過程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1. 築造 過程(도면 4)

積石木槨墳은 規模에 따라 다양한 構造를 하고 있으며,³⁾ 築造 過程 또한 規模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에 規模에 따라 크게 小型墳・中型墳과 大型墳으로 나누어 築造 過程을 복원해 보고자 한다.⁴⁾

積石木槨墓는 크게 木槨部, 積石部, 封土部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築造 順序와 방법에 따라 3段階의 築造 工程으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1次 封土部の 축성으로 墓壙掘鑿과 先築封土⁵⁾(묘광 주변부의 성토), 護石設置 등이 이뤄진다. 이 단계의 핵심은 이미 護石과 함께 封墳의 하부를 마련한다는 점이며, 이때의 성토 높이는 이후 설치될 木槨의 상단 높이보다 약간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단계는 埋葬主體部の 설치로 木槨과 積石部를 마련하여 主 埋葬儀禮를 행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3단계는 나머지 2次 封土部の 축성으로 埋葬主體部 上部의 封土築造를 의미한다.

3) 사실 積石木槨墳의 構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規模 뿐 아니라 시간성, 고분의 입지, 주변 고분과의 관계, 連接築造, 순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時期에 따른 대표적 構造 변화는 바로 묘광의 주부곽식에서 단곽식으로의 변화인데, 이는 고스란히 積石部, 封墳 등에 영향을 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積石木槨墳이 각기 다른 構造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積石木槨墳의 築造工程에 대해서는 이미 發表者가 줄고(沈炫徹 2013)를 통해 상세하게 검토한 바 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였음을 알려둔다.

5) 先築封土에 대해서는 김두철(2009)이 최초로 언급하였으며, 築造 순서로 보아 이것을 1차 封土라고 명하였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木槨上部를 덮은 封土는 아니며 묘광 주변부의 성토이다.

표 5. 積石木槨墓의 築造段階

第 1段階	第 2段階	第 3段階
1次 封土部 築成	木槨・積石部 設置 (埋葬主體部 設置)	2次 封土部 築成
① 바닥 整地 및 墓壙 掘鑿 ② 封土範圍 設定 ③ 先築封土 築成 ④ 護石 設置	⑤ 木槨 및 四周積石 ⑥ 遺物副葬 및 被葬者(木棺)安置 ⑦ 木槨 密封(木蓋 덮기) ⑧ 上部積石 및 密封粘土	⑨ 2次 封土 築成

이하에서는 築造段階에 맞춰 細部工程을 확인하고, 規模에 따른 構造와 築造工程의 차이점 및 특징을 살펴본다.

【第1段階: 1次 封土部 築成】

① 工程 — 墓域을 整地하고 墓壙을 掘鑿한다.

埋葬主體部를 설치할 부분에 얇은 수혈(墓壙)을 판다. 수혈(墓壙)의 깊이는 대체로 50cm 이내가 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묘역 전체의 지형과 고분의 規模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皇南大塚 南墳・北墳, 天馬塚, 金冠塚 등의 大型墳은 묘광을 아주 얇게 굴착하며, 中・小型墳들은 木槨을 기준으로 대개 半地下式으로 굴착한다. 이 공정은 埋葬主體部の 規模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함이다.

② 工程 — 墓壙을 基準으로 封土의 範圍를 設定한다.

封土의 범위는 결국, 護石의 위치로 확인되는데 이때 기준이 될 만한 지점에 미리 護石을 놓았을 가능성도 있다. 護石을 본격적으로 築造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돌을 놓는 형태로 護石이 완전한 곡선을 이루지 않고 일종의 다각형을 띠는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⁶⁾

封墳의 평면형태는 대체로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변하는데, 묘곽이 주부곽식에서 단곽식으로 바뀌어가는 흐름과 대체로 연동된다. 고분 築造가 점차 정형화・기획화되어 가는 경향으로 이해된다.

6) 護石이 완전한 (타)원형이 아니라 다각형이라는 관점에서, 연구자에 따라서는 각 변이 이루는 면적을 封土 築造의 분할단위로 이해하기도 하며, 護石列狀에서 각이 변화하는 지점을 분할기점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曹永鉉, 1993, 「封土墳의 盛土方法에 관하여—區劃盛土現想을 중심으로—」, 『嶺南考古學』 第13號, 嶺南考古學會.

③ 工程 — 墓壙과 護石 사이에 一定한 높이의 先築 封土를 築成한다.

묘광에서 가까운 쪽부터 단면 볼록렌즈 상으로 층층이 쌓아 올리면서 점차 그 범위를 확대시켜 앞서 설정한 封土 범위의 外緣部까지 성토해 나간다. 이때 封土의 외연부에서는 본격적인 護石의 築造가 함께 이루어진다. 이 공정은 墓槨이 地上化되면서 필연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이다. 地上化된 木槨의 측벽 높이보다 높게 성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체로 묘광에 가까운 쪽이 높고 護石 쪽이 낮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埋葬主體部를 築造할 시점에는 木槨이 지하에 설치되는 듯한 모습이 된다.

先築封土의 축성은 묘광과 護石사이의 거리에 따라 한 번에 설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⁷⁾ 묘광과 護石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소형분의 경우 이를 한 번에 축성해 나가고, 중형분의 경우에는 묘광에 가까운 쪽을 볼록렌즈 상으로 먼저 성토하고 나머지 부분을 수평적으로 성토하는 방식이다. 단, 大型墳의 경우에 묘광 가까운 쪽을 흙이 아닌 積石으로 구성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고대한 封土를 쌓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성토재료에 변화를 주어 構造적 안정성을 극대화시킨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皇南大塚 南墳・北墳, 金冠塚, 天馬塚에서는 積石-보고서상의 側壁部積石-을 쌓기 전에 단면 梯型의 木架構造를 설치한 후 積石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④ 工程 — 封土의 外緣部에 護石을 쌓아 올린다.

先築封土 축성의 마무리 작업으로서 그 외연부에 護石을 쌓아 올리는데, 封墳의 規模에 따라 護石 형식에 차이가 있다. 천석을 정연하게 쌓아 석축처럼 여러 단을 높게 쌓는 것이 기본인데, 소형분・중형분의 護石은 先築封土와 동시에 쌓아 올라가며 설치되지만, 大型墳의 護石은 先築封土를 먼저 쌓은 후에 그 외연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 설치된다. 大型墳에서는 특히 護石 외면 안쪽에 동일한 천석으로 덧채움하여 더욱 견고한 構造를 하고 있다.

포괄적 의미에서 先築封土와 護石 쌓기는 하나의 공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작업을 합쳐 [1차 封土부의 축성]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축성법이 積石木槨墓의 築造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이며, 1차 封土부의 축성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본다면 고분은 埋葬主體部를 설치하기 위한 일종의 壇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 積石木槨墳의 묘곽은 기본적으로 장방형이며, 일렬 주부곽식의 경우에는 주부곽을 합쳐 전체를 세장방형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는 묘광과 護石사이의 거리가 한 고분 내에서도 다를 수 있음을 말해준다. 護石의 평면형태가 타원형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묘곽의 단벽 쪽이 장벽 쪽에 비해 묘광에서 護石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한 고분 내에서도 장벽 쪽과 단벽 쪽의 先築封土 쌓기가 구분될 수 있다.

【第2段階: 木槨・積石部 設置】

⑤ 工程 — 木槨과 함께 四周積石을 設置한다.

1차 封土部가 완성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埋葬主體部 설치에 들어간다. 우선, 木槨을 설치하면서 동시에 木槨의 측벽과 묘광 및 先築 封土壁 사이에 돌을 채워나간다. 이렇게 채워지는 四周積石의 양상은 木槨과 묘광(先築 封土壁) 사이의 거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돌을 부정형하게 채우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木槨 외벽에 기대어 돌을 쌓듯이 채우는 경우도 확인된다. 후자의 대표적 사례가 황오 100유적의 1호인데, 發掘 조사 당시 四周積石이 마치 석축 벽처럼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다.

四周積石을 설치하는 중간이나 四周積石의 築造가 완료된 후 그 積石上面에 朱나 beng가라 (Red Iron Oxide)와 같은 붉은 안료를 뿌리고 유물을 부장하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특히 中型墳・大型墳에서 확인되는데, 이를 근거로 木槨의 높이나 四周積石의 범위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의례와 관련된 행위의 결과로 추정되는데, 그 동안의 조사에서 붉은 안료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四周積石 內에서 출토된 鐵器類나 土器類, 裝身具類 같은 遺物들은 모두 四周積石의 설치 도중이나 완료 후 행해진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小型墳은 하나의 槨만을 설치하지만 中型墳・大型墳에서는 소위 二重槨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내곽과 외곽사이에도 積石을 하여, 마치 단처럼 공간이 생기는데 이는 殉葬者를 위한 공간으로 영덕 괴시리 16호분과 쪽샘 41호, 皇南大塚 南墳 등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⁸⁾

지금까지의 築造工程을 살펴보면, 木槨을 설치할 시점에는 1차 封土部 위에서 묘광 아래로 내려가 埋葬主體部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木槨이 지하에 설치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때 四周積石은 木槨외부를 보강하는 充墳石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는 木槨이 지상으로 올라온 構造이긴 하지만, 1차 封土部에 의해 地下式과 같은 構造가 되어 木槨과 四周積石을 설치하는 것이 전통적인 木槨墓의 埋葬主體部 築造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⑥ 工程 — 遺物을 副葬하고 被葬者(木棺)를 安置한다.

木槨과 四周積石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埋葬행위가 이뤄진다. 먼저, 주검이나 棺을

8) 이것은 시간성을 가지는 構造이며, 積石木槨墳의 순장과 관련된 별고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안치하기 위해 묘광 바닥에 잔자갈 등을 깔아 바닥시설[屍床]을 마련한다. 굴착한 묘광 바닥을 아무런 시설 없이 그대로 이용하거나 묘광 바닥 전면에 잔자갈을 여러 겹 까는 경우도 있지만, 묘광바닥에 천석을 먼저 깔고 그 위에 다시 잔자갈을 까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 때 사용된 천석의 크기는 四周積石에 사용된 것과 같은 소위 人頭大(30cm 내외)정도이다. 특히, 大型墳의 경우는 下部構造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천석과 잔자갈의 두께를 두껍게 만든다. 단, 부곽에는 아무런 시설 없이 바로 유물을 부장한다.

유물부장에 있어서 주곽 쪽 유물들은 보통 피장자의 머리 쪽에 群을 이루어 부장하는데, 출토상태에 따라 副葬櫃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다. 단곽식의 경우에는 발치 쪽과 양 단벽 쪽에 모두 유물을 부장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된다.

피장자의 頭向은 東向이 가장 많고 일부 南向과 北東向도 확인된다. 결국, 頭向은 東向(埋葬主體部の 주축방향은 東-西방향)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분 築造 당시 連接築造 등의 이유로 埋葬主體部の 방향이 결정되어 버리는 경우에만 일부 主方向과 달리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⑦ 工程 — 木槨의 뚜껑을 덮는다.

일부 중형분·大型墳의 경우에는 木槨 뚜껑에 여단을 수 있는 開口部 施設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한편, 木槨 뚜껑과는 별도로 그 上部에 일정한 공간과 木蓋가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공간의 정확한 構造와 용도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⑧ 工程 — 木槨 上部에 積石을 하고 粘土로 密封을 한다.

木槨의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다시 積石을 한다. 보통 四周積石에 사용한 돌과 비슷한 크기의 것을 이용하지만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돌을 上部積石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上部積石은 소형분에서는 四周積石의 최대높이까지 거의 수평에 가깝게 목개 위를 덮는 형태이지만, 大型墳으로 갈수록 上部積石의 양도 많아지고 범위 또한 더욱 넓어진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積石部の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높아지면서 단면의 형태가 약간 弧狀을 이루는데, 封土壓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위한 構造로 생각된다.

9) 發掘調査에서 실제 木槨의 뚜껑부분이 확인된 경우는 없지만, 開口部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軸金具(혹은 棒狀鐵器)가 확인되고 있어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천마총과 皇南大塚, 金冠塚, 金鈴塚, 瑞鳳塚 등을 들 수 있는데, 모두 軸金具로 추정되는 棒狀鐵器가 일정한 범위에서 출토되었다.

上部積石이 끝나면 그 全面을 일정한 두께의 점토로 덮어 積石部를 완전히 밀봉하게 된다. 埋葬主體部의 築造에 있어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작업이며, 埋葬主體部 설치 완료의 의미이다. 기능적으로는 上部積石과 함께 埋葬主體部의 완전밀봉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적인 공정이다.¹⁰⁾

大型墳에서는 점토층의 두께가 50cm에 이를 만큼 양이 많고 두텁게 밀봉된 사례도 있다. 또한, 皇南大塚의 예에서는 그 범위가 上部積石 外緣에서부터 바깥쪽으로 8m 이상의 거리에 이를 만큼 1차 封土 상면까지 넓게 점토를 덮기도 한다.

【第3段階: 2次 封土部 築成】

⑨ 工程 — 埋葬主體部 築造 完了 後 本格的으로 2차 封土를 쌓아 올린다. 築造工程의 최후 단계로서 완전히 밀봉시킨 埋葬主體部 위에 封土를 쌓아올려 半球狀의 封墳을 완성한다. 2차 封土의 築造에도 세부적으로 많은 성토 기법들¹¹⁾이 사용되었으며, 皇南大塚의 경우에는 封墳 전체를 일정한 두께로 밀봉하는 점토층이 확인된바 있다. 이렇게 완성된 封墳은 護石을 기준으로 한 직경 대 높이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4:1에 가깝다. 이 비율은 封墳의 規模에 상관없이 積石木槨墳 전체에 비교적 일률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積石木槨墳의 築造 過程은 크게 3단계의 大工程과 ①~⑨까지의 세부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積石木槨墳은 規模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만 規模에 따른 構造적 차이만 존재할 뿐, 그 築造工程과 築造原理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하다. 이들은 묘광의 형태와 깊이, 1차 封土부의 형태와 높이, 上部積石의 형태와 規模 등에 의해 다양한 構造로 확인되며, 본고에서 밝히지 못한 더욱 상세하고 새로운 構造가 확인될 여지도 충분하다.¹²⁾ 한편,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構造의 변화를 상세히 검

10) 積石部(四周・上部)의 築造에 있어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오로지 돌만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돌과 돌 사이에 점토라든가 다른 종류의 흙과 모래를 포함시키지 않아 공극이 그대로 남게 된다. 전체 構造狀 畵이 돌들 사이에 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본래의 기능을 하게 되지만 上部積石 위를 점토로 밀봉하지 않고 그대로 封土(통상 砂質土)를 얹게 되면 누수와 함께 공극사이로 封土가 흘러드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밀봉점토의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11) 현재까지 積石木槨墳은 封土築造方式의 상세를 알만한 封墳 조사가 이뤄진 고분이 없다. 皇南大塚, 천마총의 사례로 보아 放射狀의 구획성토, 內斜向성토, 수평성토 등이 관찰되고, 사질층-점질층-(잔자갈)을 교대로 쌓아 올리는 교호성토 등이 확인된다.

12) 한 예로, 주부곽식의 경우에는 주곽과 부곽의 上部積石양상이 다르다. 대체로 주곽 쪽이 上部積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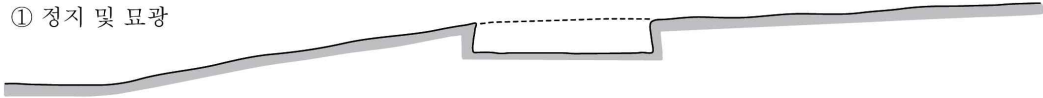
토하지 못하였다. 특히, 時期的으로 가장 앞에 위치하여 초현기의 積石木槨墓로 인식되어 온 유구들로, 木槨이 완전한 地下式일 가능성이 있고 上部積石의 형태가 다소 불분명한 고분들의 構造를 상세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황남동 109호 3·4곽과 월성로 가-13호 등을 들 수 있는데, 필자가 제시한 중소형분의 構造 및 築造工程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현재로선 이러한 유구들에서 先築封土의 존재와 묘곽의 地上化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護石의 형태, 묘곽 規模, 上部積石의 양상 등에서 더욱 상세한 분석과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필자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경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확인된 가장 뚜렷한 형태의 積石木槨墳 중 하나인 창녕 교동 12호분에도 경주지역 積石木槨墳의 構造 및 築造工程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沈炫燾 2013). 구체적으로는 묘곽의 地上化, 先築封土, 木槨과 積石部, 묘곽 비율, 유물 부장 방식 등이 동일한 規模의 경주지역 積石木槨墳과 완전히 일치한다(도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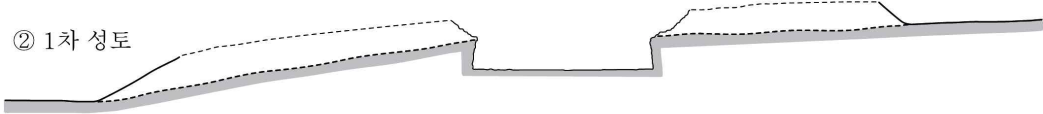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놓고 보면,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自體發展說은 그 分類에 사용된 構造(四方積石式-上部積石式-地上積石式)가 아무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기적으로 발전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은 築造工程이 완전히 다른 고분이 된다. 築造工程이 다르다는 것은 埋葬방식과 순서에도 영향을 미치며 장제가 달라져 서로를 동일한 고분으로 볼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다. 이러한 발전도식은 發掘 방식의 문제, 자료 분석의 문제를 넘어 構造의 발전 순서도 맞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構造의 차이는 만들고자 하는 고분의 規模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새로운 묘제의 築造意圖와 지향점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시간적 흐름에 따른 變遷 등을 밝혀야 할 것이다. 自體發展說은 木槨에 積石을 활용한다는 하나의 관점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 積石木槨墳의 概念과 範疇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데, 積石의 활용은 자연 환경적, 지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 양이 많고 형태도 뚜렷하다. 이것은 단순히 積石 양의 차이가 아니라 주곽에만 하나의 작업공정이 더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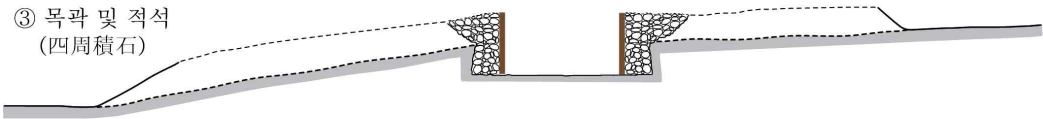
① 정지 및 묘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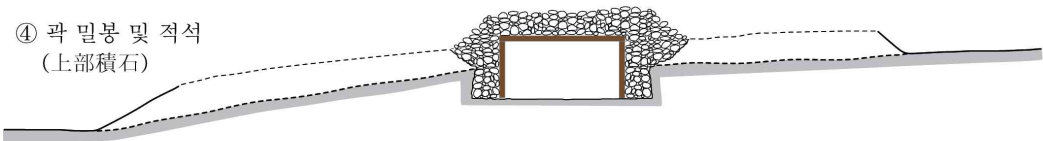
② 1차 성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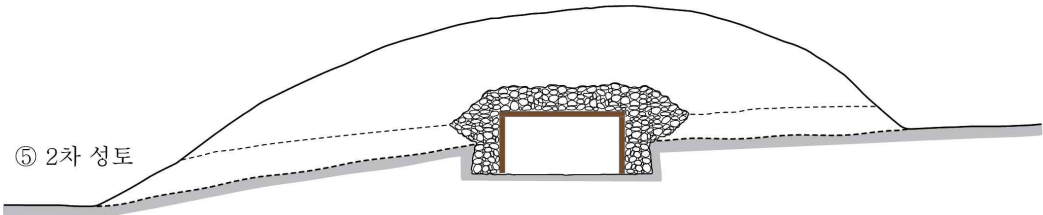
③ 목곽 및 적석
(四周積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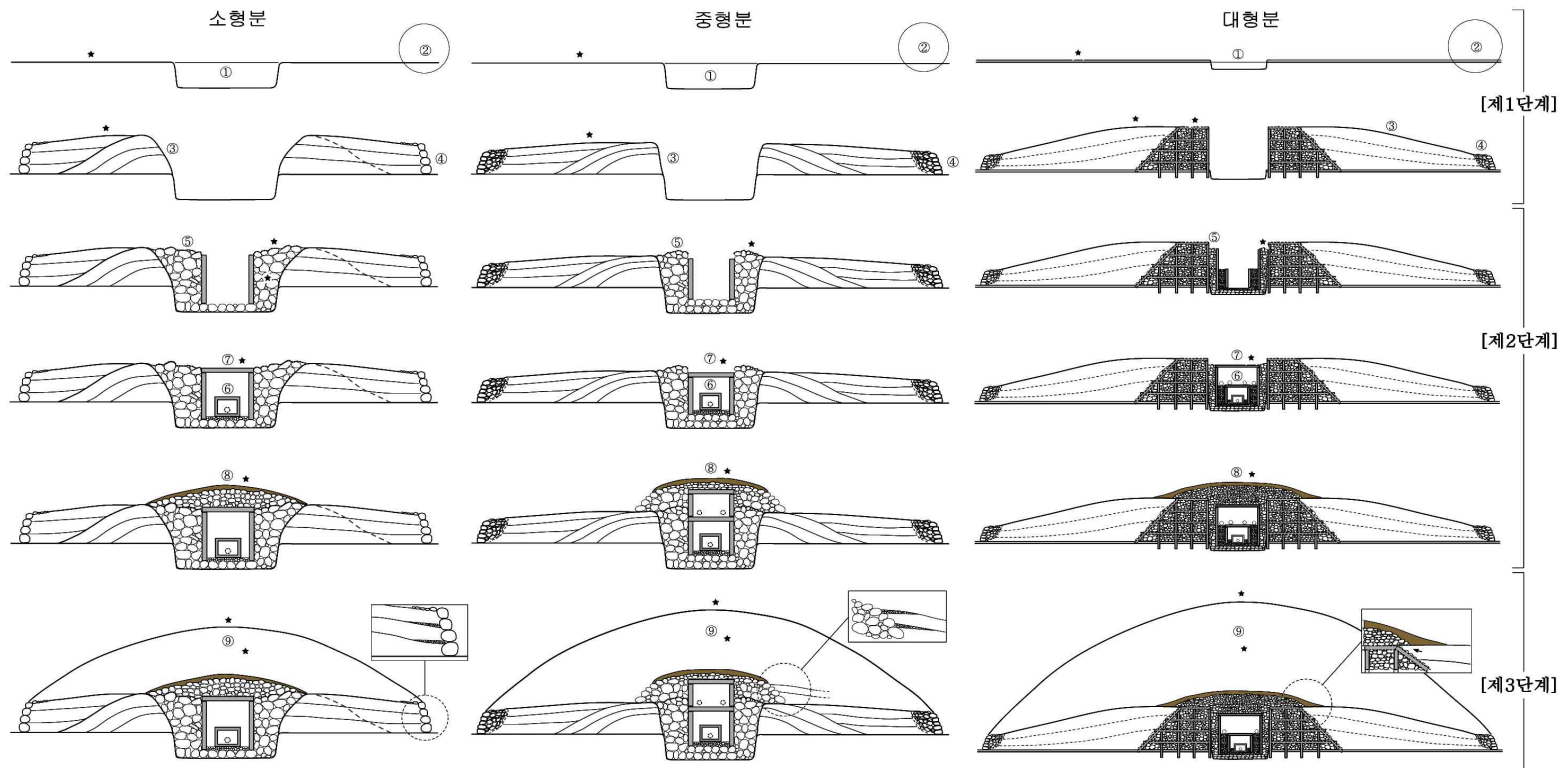
④ 광 밀봉 및 적석
(上部積石)



⑤ 2차 성토



도면 3. 昌寧 校洞 12號墳의 築造 過程(沈炫澈 2013a의 그림 7)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① 바닥정지 및 표광 굴착	⑤ 목곽 및 四周積石	⑨ 2차 봉토 축성
② 봉토 범위 설정	⑥ 유물 부장 및 피장자 안치	★ 의례관련 유물 출토예상 지점
③ 1차 봉토 축성	⑦ 목곽 밀봉	
④ 호석 설치	⑧ 上部積石 및 밀봉점토	

※ 모식도 복원에 참고한 유구

소형분 : 味鄒王陵前地域(第6區) C地區 1號, 쪽샘 B3號, 皇吾100 3號 外

중형분 : 皇吾洞 54號 甲塚, 味鄒王陵地域 第7區 5號, 쪽샘 E41號 外

대형분 : 皇南大塚 南墳

도면 4. 規模別 積石木槨墳의 築造 過程(沈炫澈 2013b의 도면 12 일부수정)

2. 埋葬 프로세스(process)

積石木槨墳의 埋葬과 관련된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알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한 관점에서의 詳細한 조사와 자료의 集積이 先行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큰 原因이다. 따라서 여기서 埋葬 프로세스를 追跡하는 작업도 築造 過程 內에서 確因된 사항을 基礎로 유추해 보는 정도의 수준임을 밝혀둔다.

順次的으로 살펴보면, 築造 過程으로 보아 주검 發生 以後 바로 葬地 選定과 함께 1차 封土部가 築造되었을 것이다. 이 기간이 그대로 埋納 이전까지의 총 葬禮期間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大型墳의 경우에 積石部 設置를 위한 木架構造施設이 殯殿으로 活用되었을 可能性이 提示된 바 있다. 이 기간은 副葬品の 준비 등 본격적인 埋葬에 필요한 葬禮 物品의 총 준비시간이기도 하다. 葬地로의 시신 運柩와 貢獻品 및 副葬品 등이 모두 1차 封土部 위에 준비된다. 이미 木槨의 側壁은 完成된 狀態이며, 大型墳의 경우 뚜껑까지 마련된 상태로 開口部를 통해 本格的인 埋葬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時點에서 보면 積石木槨墳은 地上式이라고는 하나 完全한 豎穴式 埋葬이 이루어지며, 埋葬 전후로는 1차 封土部 위에 다양한 儀禮行爲가 행해진다. 柱穴이나 遺物이 封土 중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그 證據이다. 頭向을 동쪽으로 두고, 머리 쪽 부장칸에는 금속제 용기나 소형의 貢獻遺物을 놓는다. 土器類가 먼저 놓이고 金屬遺物은 그 위나 사이에 놓는다. 시신과 함께 木棺이 下棺되며, 시신은 服飾遺物 주로 金屬製 裝身具를 着裝한 狀態로 들어간다. 발치 쪽에는 別途의 墓壇에 副槨을 設置하고 대형 土器類와 馬具類, 武具類, 武器類, 農工具類 등 副葬品이 들어간다. 중형분 이상에서는 殉葬者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主槨을 二重槨으로 만들어 石壇 위에 약간의 유물과 함께 순장자를 배치하거나 內廊 上部에 垂直으로 擴張된 別途의 空間을 만들어 殉葬者를 配置하기도 한다. 주피장자나 순장자가 놓이는 공간에는 朱나 벵가라 같은 呪術的 意味의 붉은 顔料를 뿌리기도 한다. 이렇게 本格的인 埋葬이 終了되고 나면, 上部積石을 하고 粘土로 上部를 完全히 密封한다. 이 시점에서 다시 儀禮가 행해지며, 나머지 封土를 쌓아 高분을 完成하면 모든 埋葬節次가 完了된다. 高분 築造 후에는 封墳 頂上部나 護石 附近에서 大壺나 盒 등의 土器類를 매납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持續的인 儀禮가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결국, 埋葬 過程에서 있어서도 무엇보다 위에서 아래로의 豎穴式 埋葬이 이뤄진다는 점이 積石木槨墳의 核心임을 再次 強調하고 싶다.

IV. 結 論

積石木槨墳의 構造, 築造 過程, 埋葬 프로세스를 복원하는 작업은 積石木槨墳의 概念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작업이며, 積石木槨墳과 관련된 모든 研究의 出發이자 核心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積石木槨墳의 構造的 特徵들을 整理하면, 積石木槨墳이라는 墓制는 木槨을 이용한 埋葬主體部를 만들면서도 그 위에 高대한 封土를 쌓아 올리기 위하여, 構造的인 安定性を 極大化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考案된 構造를 갖추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積石部の 構造와 型態가 가장 눈에 띄는데, 封墳의 規模에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封墳을 築造하기 위해서 積石部の 規模와 型態를 效率的으로 變化시키고 있다. 결국, 積石部가 積石木槨墳 築造의 核心이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嶺南地域의 封土墳 중에서 가장 規模가 큰 고분이 왜 ‘積石+木槨’을 内部構造(埋葬主體部)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도 바로 여기에 있다. 積石部の 型態와 構造만 效率的으로 考案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큰 規模의 고분을 築造해 낼 수 있는 것이다. 慶州 이외의 嶺南地方 高塚의 石槨과 달리 長大한 蓋石을 이용하지 않고도 埋葬主體部와 함께 高대한 封土를 築造해 내고 있는 것이다.

積石木槨墳은 築造材料의 收給문제, 고분의 立地의인 與件, 持續的으로 유지하려는 木槨의 傳統 등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도 高塚을 指向하고자 했던 新羅(慶州)支配層 内部의 熱望과 要求에 의해 誕生한 特別한 構造의 木槨墓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積石木槨墳도 木槨墓의 範疇에 包含시켜 理解하고 있다.

여전히 다양한 構造와 樣相으로 確認되는 積石木槨墳을 效率的으로 分類하거나 정의내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너무 單純化시켜 積石의 存在-木槨周圍의 補强[充填]에 들어간 돌의 有無-만으로 積石木槨墳을 간단히 概念짓고 範疇를 확대시켜 온 최근의 연구경향은 분명 再考할 必要가 있다. 덧붙여 超大型墳에서 특히 ‘돌로 쌓아 만든 封土’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온 ‘積石封土’라는 用語는 이제 不必要하다. 天馬塚의 잘못된 復原事例에서와 같이 木槨을 뒤덮은 封土 概念의 積石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積石部는 木槨을 支撐하고, 高대한 封墳을 쌓기 위한 内部構造로서 존재한다. 즉, 積石部는 封土의 概念이 아니라 木槨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構造物로서 役割을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新羅社會 내에서 이와 같이 獨特한 構造의 木槨墓를 築造하게 된 契機와 그들이 지향하고자 했던 바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既存 研究의 認識과는 달리

大型墳뿐만 아니라 소형분과 중형분의 사례에서도 墓槨은 완전한 地上式이거나 半地上式의 構造가 많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積石木槨墳이라는 墓制가 처음부터 墳墓의 地上化와 高塚化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實現하기 위하여 石築式의 護石, 先築封土, 積石部 등 다양한 構造的 考案이 이뤄졌음을 확인하였다.

積石木槨墳의 研究는 起源과 系統論에 이어 概念과 範疇論, 發生論을 거치며 構造的인 問題에 關心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조사수준의 向上으로 상세한 構造가 드러나면서 가능해졌다. 構造研究의 本質은 墓制의 概念과 範疇, 發生, 起源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한 출발이다. 향후 詳細構造의 정확한 복원과 積石木槨墳의 構造的 變遷 過程에 관한 論意가 더욱 活潑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參考文獻

- 姜仁求, 1981, 「新羅 積石封土墳의 구조와 계통」, 『韓國史論』 第7輯,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 姜仁求, 1991, 「新羅古墳研究에 있어서의 몇 가지 補正」, 『선사와 고대』 第1輯, 韓國古代學會.
- 金大煥, 2001a, 『嶺南地方 積石木槨墓에 대한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大煥, 2001b, 「嶺南地方 積石木槨墓의 時空的 變遷」, 『嶺南考古學』 第29號, 嶺南考古學會.
- 金大煥, 2002, 「지배층묘를 통해 본 新羅 중심지역의 型成」, 『科技考古研究』 第8號, 아주대학교 박물관.
- 金大煥, 2007, 「古墳 資料로 본 新羅의 國家 型成」, 『국가 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요지, 韓國考古學會.
- 金東潤, 2009, 「新羅 積石木槨墓의 變遷 過程 研究」, 『考古廣場』 第4號, 釜山考古學研究會.
- 金斗喆, 2007, 「소위 四方式積石木槨墓의 검토-福泉洞31·32號墳과 林堂洞G-5, G-6號墳을 중심으로-」, 『考古廣場』 創刊號, 釜山考古學研究會.
- 金斗喆, 2009, 「積石木槨墓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古文化』 第73輯,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 金龍星, 2002, 「古新羅 慶州 中心古墳群의 造墓區域 變遷 過程」, 『悠山姜仁求教授停年紀念 東北亞古文化論叢』, 悠山姜仁求教授停年紀念論叢編纂委員會.
- 金龍星, 2004, 「新羅 高塚의 擴散過程」, 『新羅文化』 第23輯,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 金龍星, 2006, 「壺杆塚·銀鈴塚의 構造와 性格」, 『壺杆塚·銀鈴塚 發掘60주년기념 심포지엄』, 國立中央博物館.
- 김용성·최규중, 2007a, 「積石木槨墓(積石木槨墓)의 새로운 이해」, 『石心鄭永和教授停年退任 紀念天馬考古學論叢』, 石心鄭永和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 金龍星, 2007b, 「新羅 積石封土墳의 地上式 埋葬主體施設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第56號, 韓國上古史學會.
- 金龍星, 2009, 『신라왕도의 고총과 그 주변』 (학연문화사).
- 朴光烈, 2001a, 「新羅 積石木槨墓의 開始에 대한 檢討」, 『慶州史學』 第20輯, 慶州史學會.
- 朴光烈, 2001b, 「Ⅱ期 積石木槨墳 出土 陶質土器의 檢討」, 『新羅學研究』 第5輯, 威德大學校 新羅學研究所.
- 朴光烈, 2014, 「新羅積石木槨墳의 研究와 金冠塚」, 『金冠塚과 奈斯智王』, 國立中央博物館 학술심포지엄.
- 박형렬, 2016, 「新羅 地上式 積石木槨墳의 發生에 대한 一考察」, 『嶺南考古學報』 75號, 嶺南考古學會.
- 申敬澈, 1985, 「古式鎧子考」, 『釜大史學』 第9輯, 釜山大學校 史學會.
- 沈炫澈, 2007, 『慶州 積石木槨墓 護石의 檢討』,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學士學位論文.
- 沈炫澈, 2012, 『新羅 積石木槨墓의 構造研究』,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沈炫澈, 2013a, 「新羅 積石木槨墓의 構造와 築造工程」, 『한국고고학보 88집』, 한국고고학회.
- 沈炫澈, 2013b, 「昌寧 校洞 12號墳의 構造와 性格」, 『야외고고학 18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李盛周, 1992, 「蔚山 中山里遺蹟 發掘을 通하여 본 新羅墓制의 起源」, 제1회 영남고고학회 학술 발표회, 嶺南考古學會.
- 李盛周, 1996, 「新羅式 木槨墓의 展開와 意義」, 『新羅考古學의 諸問題』, 제20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韓國考古學會.
- 李恩碩, 1999, 「慶州 皇南大塚 構造에 대한 一考察」, 『考古歷史學志』第15輯, 東亞大學校博物館.
- 李在興, 2007, 「慶州地域 積石木槨墓의 出現過程에 대한 一考察」, 『嶺南考古學』第43號, 嶺南考古學會.
- 李熙濬, 1987, 「慶州 皇南洞 第109號墳의 構造 再檢討」,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I』,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 李熙濬, 1996, 「慶州 月城路 가-13號 積石木槨墓에 대하여」,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 李熙濬, 1998, 『4-5世紀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車順喆, 2006, 「해방이후 현재까지의 경주 신라고분 發掘調査」, 『新羅古墳 發掘調査 100년』(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학술심포지엄),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 崔秉鉉, 1981, 「古新羅積石木槨墳의 變遷과 編年」, 『韓國考古學報』第10・11合輯, 韓國考古學會.
-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一志社).
- 崔秉鉉, 2000, 「皇南大塚의 構造와 新羅 積石木槨墳의 變遷・起源」, 『皇南大塚의 再照明』,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 崔鍾圭, 1983, 「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 『釜大史學』第7輯, 釜山大學校 史學會.
- 洪潛植, 2003, 『新羅 後期 古墳文化 研究』(춘추각).
- 穴澤啄光, 1972, 「慶州新羅古墳の編年」, 『古代學』18-2.
- 小泉顯夫, 1927, 「慶州瑞鳳塚の發見」, 『史學雜誌』第38卷 1號, 東京大學校 史學會.
-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跡の遍歴-發掘調査三十年の回想-』, 六興出版.
- 藤井和夫, 1979, 「慶州古新羅古墳編年試案-出土新羅土器を中心として-」, 『神奈川考古』6.
- 毛利光俊彦, 1983, 「新羅積石木槨墳考」, 『文化財論叢』.
- 毛利光俊彦, 1987, 「新羅積石木槨墳の構造の變遷について」, 『朝鮮學報』第122輯, 朝鮮學會.
- (發掘報告書는 省略)

【Abstract】

Construction Process of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
and Burial Process

Shim Hyun-chul

The restoration of the structure and construction process of th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 and the related burial practices, aims to clearly understand the concept behind the tombs, and is the starting point and key of all studies on these tombs.

Since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over 100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 have been surveyed, but their structures have not yet been fully identified. Amid this situation, however, diverse studies and discussions are being conducted regarding their origin, and systematic theories on their concepts, categories, creation, etc. have been advanced

Meanwhile, the review of the excavation data derived from the investigation of the tomb base area revealed that, contrary to our current understanding, not only large tombs but also small and medium-sized tombs were found to have a complete aboveground structure and a semi-aboveground structure. This confirmed that, of the existing excavation data involving no investigation of the tomb base area,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position of the wooden tomb was misconceived as the underground style. This suggests that the system of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 aimed to construct aboveground tombs and high mounds, and such a practice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tonework-style retaining stone slabs, pre-built mounds, stone mound area, etc. Th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 vary greatly in size and structure, but they are completely identical in terms of the actual construction process and construction principles. The construction style of the aboveground tombs is distinctive, but adherence to the traditional pit-style burial method is considered an important characteristic feature of the tombs.

The restoration of the tomb construction process and the burial process is the presumed result based on the restoration of th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 structure for the time being. Given the recent survey trends, the structure will be further materialized, and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the burial process will also be further clarified.

Key words : Wooden chamber tomb with stone mound, structure, construction process,
high mound, burial process, conception

‘積石木槨墳의 築造 過程과 埋葬 프로세스(process)’에 대한 討論文

李 恩 碩*

發表者께서는 大型 封土墳에 대한 築造 기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기존 發掘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을 밝혀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埋葬 프로세스를 밝혀내는, 따라서 당시의 埋葬습속과 문화에 대한 부분이 점차 밝혀지면 고대사 복원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리라고 봅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積石木槨墳의 구조 차이 즉 地下式과 半地下式, 그리고 地上式에 대한 築造工程을 해석하였고, 이에 대해 저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따라서 新羅 積石木槨墳의 大型 封土 築造 등에 대해 저도 평소에 의문을 지니고 있던 것을 포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積石木槨墳의 築造와 관련해서 慶州지역의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慶州지역은 지하 2~4m를 파면 지하수가 올라옵니다. 皇南大塚과 같은 大型墳의 경우 地下式구조로 築造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기적으로 地下式에서 地上式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별 고분이 築造되는 위치상에 있어서도 당시의 지형이 고려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6세기 중반 이후 慶州는 도시계획과 함께 전역이 복토 및 정지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분이 築造되는 지역의 배수체계와 지형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瑞鳳塚 發掘 결과를 보면 南墳이 規模도 작고, 더 늦게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경주시내에서 皇南大塚, 發掘이 되지 않은 119호분을 비롯하여 134호분과 143호분 등 雙墳을 築造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王과 王妃 혹은 夫婦墓로 인식해야 하는지요? 지금 發掘 중인 瑞鳳塚은 어떻게 해석하는지요?

*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2. 發表者께서는 皇南大塚 南墳에 대한 封墳의 유형별 築造 過程 모식도에서 보면 積石 上部에 대한 築造 過程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론 積石 上部 封土 築造에 대해서는 해석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皇南大塚 南墳 發掘調査 報告書 내용을 살펴보면 ‘지면상 12m에서부터 積石部 上面部까지 파내려간 積石部 탐색갱의 벽면에는 2~3m 간격으로 거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얇은 자갈층이 나타났는데, 封土 외곽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이 자갈층이 아래쪽으로 심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으나 보다 내부 쪽의 것은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築造는 제시된 <그림 1·3>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築造한 것일까요? 그리고 積石 上部에는 나무기둥 자리<그림 4>는 이러한 築造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 『삼국사기』의 A.D. 435년 ‘修葺歷代園陵’ 기사와 관련, 王陵을 封墳을 수리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皇南大塚 南墳을 눌지왕릉(A.D. 458년) 으로 보는 견해는 ‘이러한 封墳 수리한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만, 다음의 <그림 4·5>에 보면 木槨 中央部 陷沒 후 다시 자갈과 마사를 덮고 2m 이상 피복한 흔적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한 흔적으로 보아 기사 내용과 부합되고 있다(이은석 1999)고 생각합니다만, 發表者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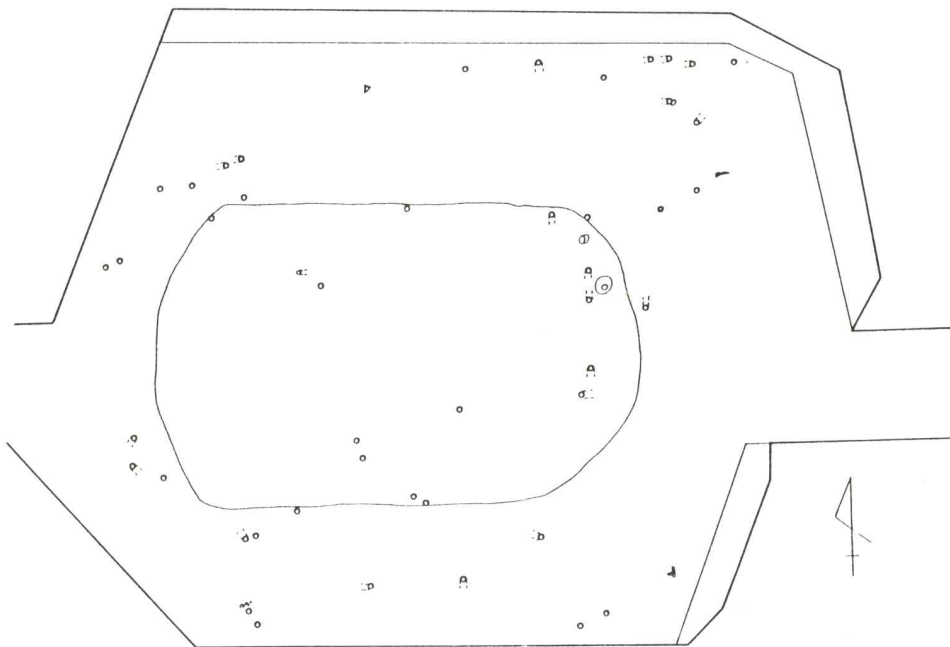


그림 1. 皇南大塚 南墳 封土 築造 상태(남쪽에서)





그림 3. 皇南大塚 南墳 封土 築造 상태(동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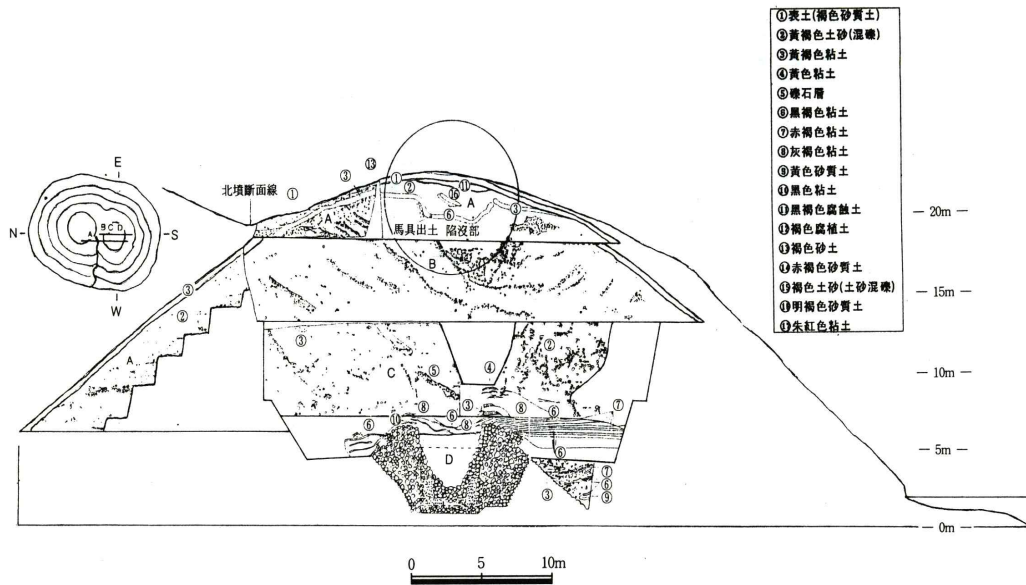


그림 5. 皇南大塚 南墳 封土(○ 含物부)

